



보도	2024.9.5.(목) 10:00	배포	2024.9.3.(화)		
담당부서	감독총괄국	책임자	국 장	김형원	(02-3145-8300)
	감독혁신조정팀	담당자	팀 장	조영범	(02-3145-8310)
	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정우현	(02-3145-8020)
	은행리스크감독팀	담당자	팀 장	명기영	(02-3145-8060)
	보험감독국	책임자	국 장	서영일	(02-3145-7460)
	건전경영팀	담당자	팀 장	곽정민	(02-3145-7455)
	중소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종오	(02-3145-6770)
	중소금융제도팀	담당자	팀 장	오수진	(02-3145-6775)
	여신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	김은순	(02-3145-7550)
	여신금융제도팀	담당자	팀 장	이성복	(02-3145-7440)
	금융IT안전국	책임자	국 장	백규정	(02-3145-7120)
	금융IT안전총괄팀	담당자	팀 장	이성욱	(02-3145-7125)

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

- 「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/F」 Kick-off 회의 개최 -
-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 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 차별화 추진 -

I. 개요

- □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디지털화, 비금융회사 금융참여 확대 등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협회·전문가 등과 함께 「운영위험* 관리강화 T/F」를 구성
 - *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, 인력,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
 - '24.9.5.(목)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Kick-off 회의를 개최하여 은행·보험·카드·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

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/F Kick-off 회의 개요

- 일시·장소: '24.9.5.(목) 10:00~11:00, 금융감독원 9층 중회의실
- 참 석 자:(금감원) 수석부원장(주재), 감독총괄국, 은행감독국, 보험감독국, 중소금융감독국, 여신금융감독국, 금융IT안전국

회) 은행연합회, 생명·손해보험협회, 여신금융협회

(연구원) 금융연구원, 보험연구원, 여신금융연구소

(전금사) NHN KCP(한국사이버결제)

• 논의 내용 : 은행·보험·카드·IT 등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

Ⅱ. T/F 논의내용

< 추진 배경 >

- ◆ 최근 전통적인 금융회사 外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영역(IT, 플랫폼, 중개·대리 등)의 시장규모가 급성장
 - 비정형적 금융위험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 해소 필요
 - 금융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를 통해 비규제영역(플랫폼, 판매채널 등)에 내재된 금융위험 관리를 강화(간접관리)하는 한편, 국제논의에 맞추어 직접규제 방안 검토

1 주요 발표 내용

- □ **[추진배경]** 최근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·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취급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내 **새로운 위험요인**이 대두
 - 금융시장의 위험특성도 전통적인 신용·시장위험 등 거래위험 外에 금융사고, 소비자피해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의 중요성 증가
- □ [대응방향] 그동안의 동일기능-동일규제 원칙 적용(1단계)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(2단계) 체계 조속히 마련
 - 이를 통해 **규제사각지대 해소**, 금융시장 위험요인 **효과적 통제** 도모
- □ (향후 추진과제)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,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 마련
 - [공통과제] 이사회·경영진의 운영위험 관리 책임 및 역할배분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마련(질적규제)하고,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(양적규제)
 - ①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
 - ②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
 - ③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(자본규제 등) 부과

- [업권별 과제] 업권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(카드사-PG사) 판매채널 소비자피해(보험-GA), 대형 금융사고(은행, IT 등) 등의 위험요인 중점 관리 추진
 - ① (카드사) PG사 온라인 결제위험 점검 및 관리책임 강화
 - ② (보험사) 판매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 확대
 - ③ (은 행) 은행권의 운영위험 관리 실효성 점검 및 세부기준 보완 검토
 - ④ (금융IT) 금융권 IT위탁·제휴 관련 집중위험 관리의 적정성 점검

2 주요 참석자 발언 요지

- □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와 관련하여,
 -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,
 GA 불완전판매,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*을 초래하고 있다면서,
 - * (은행) 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금(1.8조원) 등으로 '24.1분기 영업외손익 △**2.2조원** 기록
 -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**질적·양적 관리 규제**를 **개선**하여, 금융회사의 **운영위험 관리역량**에 따라 **재무적 성과**가 **차별화**되도록 **유도해** 나갈 것임을 설명
 - 특히, 전통적인 시장·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
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,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
 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
- □ 한편 금융연구원 오태록 박사는 해외에서도 업무위탁 확대 등에 따른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설명하면서,
 - 독일의 경우 '21.7월 금융시장안정강화법*(FISG)을 도입하여 금융 당국에 **수탁사(비금융회사)**에 대한 **정보접근권, 직접조사권** 등을 부여(직접규제)하였음을 사례로 언급
 - * Financial Market Integrity Strengthening Act (FISG)

- □ 아울러 **회의 참석자들**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**금융사고 재발을 방지**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**운영위험 관리를 강화**할 **필요**가 있다는 점에 대해 **충분히 공감**하면서,
 - 앞으로 당국의 제도개선이 **실질적인 운영위험 관리 강화**로 이어질 수 있도록 **적극 협조**하기로 함

Ⅲ. 향후 계획

- □ '24년 하반기 중 T/F를 통해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(action-plan) 마련
 - o 각 업권별로 **의견수렴**을 거쳐 **순차적으로 시범운영** 등 실시

[업권별 향후 추진 일정(잠정)]

권역	추진 내용	일정
공통	· 운영위험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	'24.12월
은행	· PSMOR 이행현황 점검	
	· 위험평가 업무에 PSMOR 준수여부 반영	′25년
보험	· '보험개혁회의' 논의 및 세부평가기준 등 마련	′24년
	· 운영위험평가 등급구간, K-ICS 위험계수 산출 등을 위한 계량영향 분석	′25.상반기
	· 보험법령 개정	′25.하반기
카드	· 시장의견 수렴 거쳐 시행방안(초안) 마련	′24년 말
금융IT	· IT위탁·제휴 집중업체 안전성 점검 및 감독방안 마련	′24.12월

^{* (}참고) 시장의견 수렴·유관기관 협의 등에 따라 추진일정 변경 가능

※ 은행·보험·카드 업권에 이어 중소금융업권(저축·상호·캐피탈)의 운영 위험 관리강화 방안 순차적으로 검토

[별첨]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계획(안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